

광주FC 이적생 권성운 “놀라운 팀’서 우승 노리겠다”



FC서울과 부산아이파크에서 활약했던 전천후 미드필더 권성운이 2025시즌 광주FC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디테일 살아있고 색깔있는 광주 축구 매력... 열심히 적응 중”

새 팀에서 적응을 끝낸 '이적생' 권성운(23)이 광주FC에서 반전의 시즌을 노린다.

올 시즌 광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정효불'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적을 하면서 선수단 재구성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새 열풍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드필더 권성운도 이정호 감독이 주목하는 새 전력 중 하나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그는 볼 간수 능력에서도 자신감을 보인다. 무엇보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측면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정호 감독의 지도 아래 축구 시야를 넓히고 있는 그는 '놀라운 팀' 광주에서 우승의 순간을 꿈꾼다.

권성운은 “포레 (조)성권이랑 (변)준수가 있어서 편하게 팀에 잘 적응했다”며 “광주라는 팀은 특별했다. 밖에서 봤을 때 플레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조직적이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았다. 팀으로 뭉친 느낌이였다. 또 광주의 축구 색깔이 있어서 엄청 재미있게 봤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어 “팀에 와서 생활해 보니 엄청 신기하고 ‘이런 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왜 광주가 이렇게 화제가 됐던 건지 알게 됐고, 몸으로 느껴보니 확실히 광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새 팀의 생활에 빨리 적응했지만 광주 축구는 어렵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광주 축구를 익혀가느라 바쁘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크다.

권성운은 “모든 면에서 다 생각하고 해야 한다.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공격하다가 뺏겼을 때 감독님이 원하시는 압박을 할 수 있게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또 템포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을 못 했었다”며 “적응을 해도 어렵지만 감독님, 코

치님들이 많이 잘 알려주신다. 수비적인 부분도 공격적인 부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다. 더 연습을 해야하지만 이해하고 같이 맞추다 보면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운에게는 광주의 세밀함이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 세밀하게 배우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권성운은 “디테일한 부분이 달랐다. 전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르고 이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다. 생각을 안 하면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공부하고 영상 보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이렇게 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광주가 좋은 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운은 공격의 실마리가 돼 승리를 이끌고, 완벽한 수비로 승점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권성운은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사이드백을 보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빌드업할 때 중앙에서 푸는 역할을 많이 요구하신다. 또 사이드백은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해야 골을 안 먹기 때문에 수비 위치 그런 부분을 주문하신다”며 “같이 훈련하고 경기해 보니까 광주 선수들이 진짜 다 가진 능력이 있다. 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좋다. 그리고 워낙 감독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잘하면 우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CLE부터 시작해서 경기에 들어가고, 선수들과 리그까지 좋은 성적 내면서 나도 성장하고 팀도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다”며 “감독님이 10개의 포인트를 이야기하셨다. 일단 7개만 해보자고 하셨는데 골을 넣으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크로스 연습도 많이 하고 있다.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는 7개, 10개 이상 그 게 목표다. 그리고 팀의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탬파베이, 김하성 계약 공식 발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가 김하성(29·사진)과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탬파베이는 4일 “김하성과 2년 최대 3100만달러(약 425억원)에 계약했다. 2026시즌 계약 이행은 선수가 선택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탬파베이는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은 몸 상태가 좋다. 나를 믿고, 좋은 계약을 해준 구단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탬파베이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탬파베이는 김하성을 40인 로스터에 등록하고 투수 브랜던 아이저트를 방출 대기했다.

탬파베이는 “김하성은 지난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121경기에 출전해 홈런 11개, 도루 22개, 타율 0.233, 출루율 0.330, 장타율 0.370을 올렸다”며 “8월에는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IL)에 올랐고 10월에 수술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1~2024년 김하성의 베이스볼레퍼런스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bWAR)는 15.3으로 매니 마차도(17.7)에 이은 샌디에이고 2위였다”면서 “2022년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23년에는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김하성의 탬파베이행은 지난달 30일 ESPN, MLB닷컴 등 미국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졌다. 김하성은 계약 첫해인 2025년에는 1300만달러,



2026년에는 1600만달러를 받는다. 올해 325타석 이상에 서면 200만달러를 추가로 챙긴다.

더 주목할 점은 옵트아웃(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FA 자격을 재취득) 조항이다.

김하성은 2025시즌 종료 뒤 계약 연장 여부를 택할 수 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유격수’로 활약하던 김하성은 2020시즌을 마치고 샌디에이고와 계약해 빅리거가 됐다.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은 4시즌 통산 타율 0.242, 47홈런, 20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06으로 활약했다.

타격 성적은 리그 평균 수준이었으나 유격수와 3루수, 2루수를 오가며 MLB 최정상급 수비 능력을 뽐냈다. /연합뉴스

‘5연패’ 페퍼스, 꼴찌 잡고 반등 노린다

오늘 7위 GS칼텍스와 격돌
10승·봄배구 진출 ‘분수령’
선수단 자신감·기량회복 관건

최근 ‘5연패’와 ‘6위 강등’이라는 부진에 빠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연패 끊기에 나선다. 페퍼스(8승 17패·승점 25)는 5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승점 7점 차로 따라붙은 7위 GS칼텍스 서울Kixx(5승 20패·승점 18)를 상대한다.

페퍼스는 지난달 3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 5라운드 첫 경기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1-3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다.

이날 페퍼스가 첫 세트를 따내면서 기세를 제압했지만 뒷심부족으로 내리 3세트를 내줬다.

테일러는 39.66%의 공격 성공률로 양팀 최다 24득점을 올렸고 11득점을 더한 장위가 53.85%의 공격 성공률로 분전했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5연패 상대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은행이었기에 패배가 아쉽다.

기업은행은 외국인선수 빅토리아와 찰떡 호흡을 보였던 주전 세터 전신홍의 발목 부상 여파 등으로 전력이 흔들리며 연패 중이었지만, 이날 페



페퍼스를 7연패 탈출 희망양'으로 삼았다.

한때 ‘막내의 반란’을 외쳤던 페퍼스가 승리의 손맛을 되찾기 위해서는 선수단의 자신감과 기량 회복이 필요하다. 그만큼 GS칼텍스와의 이번 경

기가 중요하다.

이번 시즌 36.0%의 팀 공격 성공률을 기록 중인 페퍼스는 GS칼텍스와의 전적에서는 38.73%를 보이며 상대(36.36%)에 소폭 앞서고 있다.

테일러와 장위가 간신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반 들어 위력이 떨어지고 있는 박정아(사진)와 이한비의 성적이 아쉽다.

연승 기간 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던 ‘클러치 박’ 박정아의 작전 경기 리시브 효율은 10.71%, 기록없는 플레이로 ‘신흥 강자’ 타이틀을 얻은 이한비는 5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페퍼스는 반드시 ‘최하위’ GS칼텍스에 승리를 거둬야 한다.

이번 경기 이후 페퍼스는 곧바로 1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9일)와 2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4일)를 상대하게 된다.

아직 정규 리그 11경기가 남았지만 패배 분위기가 이어질수록 ‘10승 달성’과 ‘봄배구 진출’이라는 목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페퍼스에게는 이번 경기가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는 5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9승 16패·승점 26)를 잡고 5위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반등을 노리는 페퍼스가 GS칼텍스를 잡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호날두, 40번째 생일 자축 ‘멀티골’

알나스르, AFC 챔피언스리그 4-0 승

하루 뒤엔 40번째 생일을 맞는 ‘세기의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호날두는 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아알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알와슬(아랍에미리트)과 홈 경기에서 2골을 폭발해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의 4-0 대승에 앞장섰다.

1-0으로 앞선 전반 44분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한 호날두는 후반 33분에는 왼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오자 경중 뛰어올라 해

딩으로 또 한 번 골맛을 봤다.

이는 호날두의 이번 대회 5, 6호 골이다.

이로써 호날두는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의 안테르송 로페스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이 부문 1위는 K리그1 광주FC의 공격수 야시르 아사니(7골)다.

축구사상 가장 많은 골을 신고한 호날두의 통산 득점은 923골(프로 788골·A매치 135골)로 늘었다.

1985년 2월 5일에 태어난 호날두는 40번째 생일을 앞두고도 골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리그 스테이지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거둔 알나스르(골 득실 +11)는 알아흘리(6승 1무)와 알힐랄(5승 1무·골 득실 +14·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서아시아 3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